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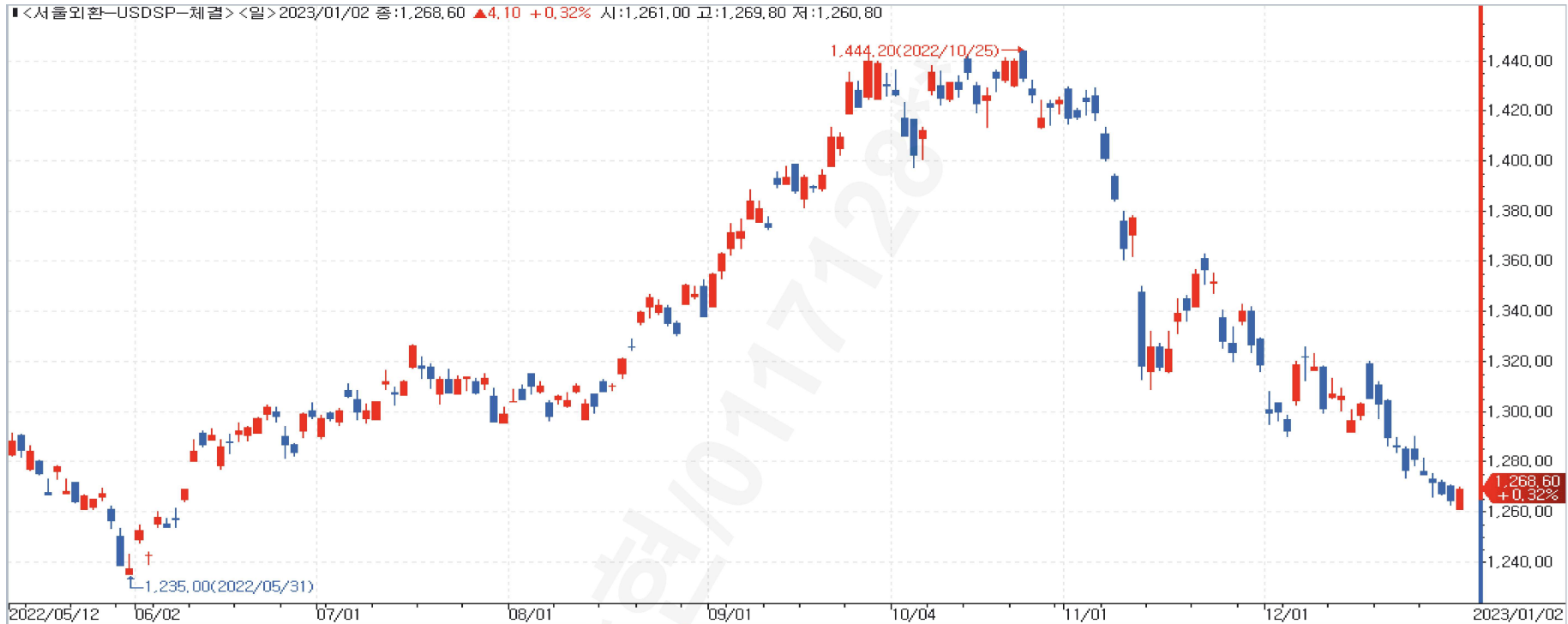
2023. 1. 2

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2/26~12/30)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 PCE 물가 지표 상승세 둔화에 따른 위험회피 완화 속 하락 출발. 이어 연말 수출 달러 매도 확대 등으로 1,270원대 초반 흐름. 이후 중국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위안화 강세와 위험 선호 영향 반영하며 하락 추세 이어진 형국
- 중반,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뉴욕 금융시장 위험회피 강화 요인에도 중국 봉쇄 조치 완화 소식 및 수출 달러 매도 강화 지속 등으로 하락세 보인 후, 미국 주택 지표 등 경기 지표 부진 소식 등에 따른 달러 강세 전환으로 큰 폭 상승 전환.
- 주 후반, 중국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코로나 새 변이 가능성 등의 부작용 우려로 상승흐름을 보이다가 연말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영향으로 하락 추세 전환하며 2022년 달러/원 환율 마감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 환율은 지난 연말로 부터 이연된 달러 매도 영향이 다소 지속될 수 있는 점이 하락추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표의 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요인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한 가운데, 중국 봉쇄해제 기대에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른 주요국가들의 중국 봉쇄 강화 조치 등이 역시 경기 관련 한 우려를 높이며 위험 회피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성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소폭 상승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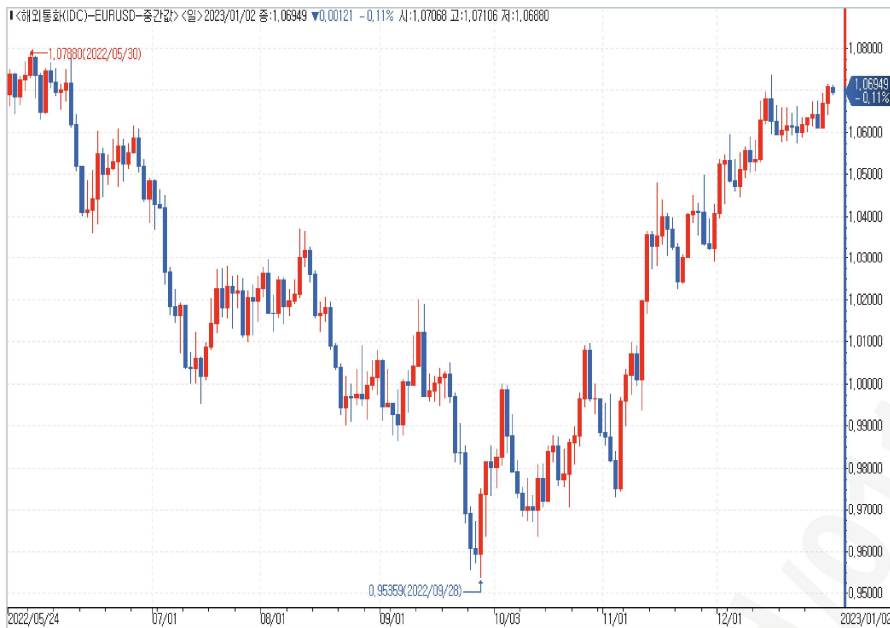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76.0	1281.1	1262.1	1264.5	-16.3

예상거래범위

1,260원 ~ 1,280원



엔·유로화 동향 (12/26~12/30)



유로화 동향

- 주초, 글로벌 변동성 완화 속에 소폭 강보합 출발한 유로화는 이어 중국 코로나 봉쇄조치 완화 소식 등에 따른 위험 선호 영향 반영 속에 달러 대비 강세 흐름 이어간 양상
- 중반 들어, 중국의 방역 완화로 중국내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각국 경계심 강화 속 달러 강세 전환 반영 등으로 유로화는 약세 전환
- 후반 들어, ECB 총재의 향후 통화정책이 75bp에서 50bp로 축소될 것이라 하면서도 꾸준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독일 분트체 금리 상승 등이 유로화 강세 전환에 영향을 미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616	1.0714	1.0599	1.0707	+0.0090

엔화 동향

- 주초, BOJ의 기존 완화적 통화 기조 유지 언급에도 미 PCE물가 감소 영향 등이 반영되며 강세 출발. 이어 YCC 금리 변동 상하한 범위 확대 영향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일본 기업들 엔화 실수요 유입 등으로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중국 방역 조치 해제에 대해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른 경계감으로 달러화가 강세 전환하며 엔화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
- 후반 들어, 연말을 앞두고 BOJ 통화정책의 영향이 재차 일본 국채 수익률을 상승시키면서 미-일 금리차 축소 속 엔화의 강세 흐름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2.9	134.5	130.7	131.3	-1.6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26~12/30)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미국 11월 PCE 물가지표가 전월에 비해 감소 양상을 이어갔으나, 시장 예상보다 소폭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국내 기관들의 국채선물 매도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출발. 이어 연말 관망세 속에 외국인의 장기 구간 국채선물 매수세 등으로 소폭 하락
- 중반 들어, 수급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선물 매도세로 돌아선 가운데, 간밤 미 국채 금리 상승 영향 등의 반영으로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국내 광공업 생산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전월비 0.4% 상승. 이에 기재부 차관의 당분간 높은 물가상승 전망 등으로 장기 구간 금리가 상승세 이어간 양상 속에 외국인 장기 국채선물 매도 영향도 국고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전주의 미국 PCE 물가가 전년 대비 4.7% 상승하며 전일 5.0% 대비 둔화한 영향이 위험 선호에 영향을 미쳤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확대 등이 상승 제한. 이어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며 상승 지속
- 중반 들어, 연말 배당락 영향 속에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나스닥 급락 등의 영향으로 2,300선을 하회하며 하락 추세 전환
- 후반 들어, 전일 뉴욕증시 급락세 이어진 영향 및 배당락 관련 기관 매도세 전환 등으로 큰 폭 하락하며 2022년 마감